

## 「진흙」과 ‘상처 입은 치유자’ 마리아: 조이스의 실존주의적 인간이해\*

이 인 기

『더블린사람들』(*Dubliners*)의 「진흙」(“Clay”)은 갱생원 세탁소에서 일하는 노 처녀 마리아(Maria)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O'Connor 307)에 계속 연루되는데, 그 실수들로 인해 조카 조우(Joe)의 집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를 망칠 뻔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저질러지는 상황은 모순적이다. 그래서 오코너(Frank O'Connor)는 그녀의 행적에 대한 묘사를 모순 혹은 “대조”의 양식으로 설명한다(O'Connor 307). 그녀의 행적이 모순의 연쇄에 갇혀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매우 가혹한 자연주의적 이야기”(O'Connor 307)로 평가한다.

한편, 마리아는 “복된 성모 마리아, 마녀 혹은 ‘가련한 노파’”(Peake 33) 등의 속성이 공존하는 인물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해석은 그녀를 알레고리적 인물로 간주하는 “초월주의적 접근”(Norris 141 재인용)의 비평경향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속성이 서로 모순되므로 이 속성들이 한 인물 속에 공존한다면, 그녀는 자연주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복합적인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크(C. Peake)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에 계속 연루되는 사람이 “진짜 평화의

\* 이 논문의 연구는 2018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사도”(D 99)로 불리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낮은”(33) 인물묘사라고 비판한다. 그녀는 복합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오히려 “굴종과 구속 안에”(33)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죽음의 세계에 의해 마비된 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마리아는 과거에 속한 인물이다. 그녀가 묻혀 있는 ‘매장지’ 바깥으로 나오면 그녀는 무능해지고 실수를 저지른다. 조우가 그녀더러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을 그녀가 거절한 것(“그녀는 자신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은 본능적으로 옳았다. 그녀는 가족이 해체되고 조우와 그의 동생이 다시는 서로 말하지 않는 세상에 더 이상 소속되어 있지도 않다. ‘진짜 평화의 사도’라 하더라도 그녀는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Peake 33)

마리아가 자연주의적 인물형이든, 굴종과 구속에 길들여진 인물형이든, 그녀에게는 조이스의 실존주의적 인간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모순의 굴레에 매여 마비된 듯한 그녀의 행적에서 삶의 실존주의적 모형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실존주의는 인간을 삶의 목적에 대한 아무런 표지도 없이 삶 속으로 ‘던져진’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 그녀처럼 눈이 가려진 채 더듬으며 그 의미를 찾는 무수한 선택의 과정과 같고, 그 궁극은 ‘진흙,’ 즉 죽음으로 귀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비록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저질러지더라도 그녀는 “진짜 평화의 사도”가 되려는 윤리적 목표를 품고 사는 면모도 보여준다. 여기에 그녀라는 인물의 복합성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조이스가 형상화한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순과 죽음의 세계 속에서도 개선을 위한 선택행위가 이어지는 양태로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조이스의 이와 같은 실존주의적 인간 이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개념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리아의 행적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 근거를 카를 융(Carl Jung)과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의 개념에 의거해서 조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안고 있는 실존적 상처를 임마누엘 레비나스(Immanuel Levinas)의 얼굴의 철학으로 조명하고, 그녀의 선택 행위의 치유적 의미는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윤리적 영역의 개념에 접목하여 고찰할 것이다.

## 1.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는 애초 심리학자 카를 융이 안출한 개념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의 켄타우루스족 가운데 카이런(Chiron)에게서 이 개념을 암시받았다. 카이런은 의학의 신으로 불렸는데 헤라클레스가 쏜 독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는 원래 불멸의 존재였지만 바위에 묶여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하기 위한 교환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며칠 후 죽게 되었고, 제우스가 약속을 지켰으면 프로메테우스는 풀려났을 것이다. 이 신화에서 융은 심리치료자의 속성을 발견했다. 카이런이 치명상을 입은 의사였듯이, 심리치료자는 치료대상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치료를 시행하는 자이다.

융은 심리치료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분석도 모든 무의식을 영원히 추방할 수는 없다. 분석가는 계속해서 끊임 없이 배워야 한다. 매번 새로운 사례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면서 이전에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무의식적 추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다지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심층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치료법 중 절반 이상이 치료자가 자신을 검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치료자는 자신에게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환자의 상태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의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의사가 느끼더라도 상관없다. 치유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의사의 상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상처 입은 의사에 관한 그리스 신화의 의미이다. (Jung par. 239)

심리치료는 의식의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심리분석에 있어서도 “모든 무의식을 영원히 추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자가 환자를 대할 때 자신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상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환자의 상태로 말[하게]” 된다. 치료의 과정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상처의 공감이 개재하는 것이다.

물론, 마리아는 심리치료자는 아니다. 하지만, 갱생원에서 일하는 세탁부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기만 하면 그녀는 호출되어 갔고, 반드시 화해를 이끌어냈다. 갱생원의 상사는 그녀를 “진짜 평화의 사도”로 칭했고, 그녀는 세탁부들을 “화해시키는 데 언제나 성공했다”(D 99). 화해를 치유라고 지칭한다면, 그녀는 치

료자이다.

그러면 그 치료를 가능하게 한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가? 딱히 능력이라고 칭할 수 있는 행동상의 특성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약간 콧소리가 섞인 투로 진정시키듯이 “그렇지요,” “아니지요”(D 99)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중에 조카인 조우를 설득해서 앨피(Alphy)와 화해시키려고 할 때도 그에 대해 몇 마디 거든 것이 고작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기층시민, 미혼자로 불리면서 살았다. 그녀는 계급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이다(Norris 142). 이 같은 호명은 그녀가 유창한 언변이 있더라도 세탁부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된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는 사실상 세탁부들이 모두 안고 있던 사회적 상처였다.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한 공감대가 그녀를 평화의 사도로 만들었을까? 그러나 처지에 대한 공감이나 화해를 “언제나” 이루어낸 동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혹시 내적 동기가 있었던 것일까? 당시 사회에서 노처녀라는 지위가 “모든 것의 결핍을 상징”한다고 볼 때, 그녀는 오히려 “전적인 욕망”의 화신으로서(Norris 140)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지녔을 수 있다.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마리아의 이야기 자체를 “사회적 조롱과 모욕을 [마리아] 자신이 내면화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이야기”(Norris 142)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그녀의 행위가 자기 환상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동기라면 어느 측면에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도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좀 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녀의 사회학적 위치에 집중하여 그 동기를 추정하기 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그녀 자신을 다시금 고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녀와 관련해서 두드러진 묘사는 그녀가 “너무 너무 왜소한 체구에 너무 긴 코와 너무 긴 턱을 갖고”(D 99) 있다는 것이다. 조이스는 그녀가 웃을 때의 모습을 또한 묘사했는데, 그녀가 웃을 때 “그녀의 코끝과 턱 끝이 거의 만났다”(D 101). 이 묘사는 한 전형적인 인물을 연상시킨다. 그녀는 서양의 속설에 등장하는 마녀의 모습을 닮지 않았는가? 그녀가 웃을 때 그녀는 마녀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그녀가 웃는 순간은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인 할로윈 축제일에 추방대상인 마녀가 출현한 것과 같다. 그녀의 외모에 주목하는 순간 그녀가 왜 노처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외모는 그녀에게는 운명적인 상처와 같다.

마녀를 닮은 외모를 지닌 채 가부장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처지를 고려하면, 샌드러 길버트(Sandra Gilbert)와 수잔 구바(Susan Gubar)의 비평적 관점을 환기할 수 있다. 그들이 밝혀낸 페미니즘적 글쓰기의 전략(Gilbert & Gubar 45-92)에 따르면, 평화의 사도라는 가면을 쓴 마리아가 그녀의 은폐된 생활영역에서 마녀로서 활동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저항하게 되는 구도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조이스가 대영제국과 종교와 가족의 존재에 폭력적인 남성성을 덧입혀놓기는 했어도 여성작가의 글쓰기 전략과 유사하게 마리아에게 체제 저항적인 의도를 접목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녀는 당시 가부장사회의 여성관을 반영하듯이 ‘가정의 천사’와 ‘창녀’의 심상이 중첩된 인물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에 의해 여성을 객체화시키던 당시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통념에 따라 평화의 사도가 되지 않으면 마녀로 지목당할 위험을 안고 사는 존재였던 것이다.

어쨌든, 그녀의 얼굴이 여성에 대한 통념의 한 권인 마녀성을 직접적으로 환기시킨다면, 그 얼굴이 대변하는 운명적 상처는 그녀의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그녀를 애처로움이나 동정심을 갖고 바라보았을 수 있다. 그녀의 얼굴이 암시하는 불쌍한 운명 앞에서 그들의 다툼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경우에 그들이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자신들의 사회적 상처와 동일시했을 수도 있다. 마리아가 지고 있는 신체적 곤경에서 그들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한 요인이 됐다. 상처가 심리치료자와 환자의 공감지대를 형성한 것과 같은 것이다.

공감이 형성될 때는 심리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처럼 그녀와 동료 사이에 독특한 역학관계가 성립된다. 그녀의 동료들은 매일 빨래하고 다리미질을 해야 했다. 그 단조롭고 고된 노동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툼도 사소한 사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진저 무니(Ginger Mooney)가 다리미질 맡은 “그 멍청한 년”(D 100)에게 해주기 싫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들 사이에 붙은 시비는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비화된 감정싸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너무 너무 왜소한 체구에 너무 긴 코와 너무 긴 턱을 가진” 마리아가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큰소리로 내지르는 말들에 대해 애처로운 외모의 마리아가 낮은 목

소리로 “그렇지요,” “아니지요”라고 진지하게 응대하고 있다. 진정시키는데 듯한 어투로 말이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마리아가 없다면 “그 멍청한 년”에게 해주지 않을 일들을 진저 무니가 “늘” 말하고 있다(D 99)는 것은 무니와 다리미 담당 사이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타난 순간 논란이 중지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젯거리가 “늘” 다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옴으로써 그들 사이의 다툼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다”(D 100). 사실상 동료들은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의 평화 사역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얼굴이 암시하는 ‘실존적’ 상처가 두드러진다. 동료들이 그녀 앞에서 자신들의 투쟁의지를 “언제나” 포기한 것도 그녀의 상처에 대한 공감 때문이다. 그녀와 동료들 사이에는 “무의식적인 관계가 형성”(Jung par. 422)되어 있는 것이다. 그 관계 때문에 화해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외모가 암시하는 운명적 상처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그녀가 매춘부 갱생원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헨리 나우웬에 따르면, 마리아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동료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경우이다.

우리는 고통에 대해 말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상처받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은 봉사는 진정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봉사와 관련하여 쓸 만한 말이 있을 수 없다. (Nouwen 4)

그러나 비록 동료들 사이에서 평화의 사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녀는 집 안에서 다투는 형제를 화해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녀가 갱생원 세탁소에서 일하게 된 것도 형제들이 싸우게 되어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카 조우와 엘피를 어렸을 때부터 돌보았는데, 조우는 그녀를 “나의 진짜 엄마”(D 100)라고 불렀다. 그래서 형제를 화해시키는 일은 그녀가 늘 고민하는 일들 중의 하나였다. 저녁에 조우의 집에서 열린 할로윈 파티 중에 옛날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엘피에 대해서 몇 마디 거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우가 “그 녀석한테 한 마디라도 건네면 내가 천벌 받아 죽는 게 나아!”(D 104)라

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녀는 사과해야 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한 기억은 그녀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상기시켰을 수 있다.

이 기억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직장에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기꺼이 하려고 했을 지도 모른다. 동료들 간의 불화를 목격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키운 조카들 사이의 불화를 떠올렸고 자신의 무능에 낮이 붉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용이 “치료법 중 절반 이상이 치료자가 자신을 검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대로, 동료들의 상처에서 그녀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동료들이 다투는 현장에서 조카들의 불화를 떠올렸을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왜 동료들이 자신이 올 때마다 싸움을 그치는지 몰랐지만, 싸움을 말리는 일에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상처를 대리적으로라도 치료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그녀는 상사가 자신을 다툼의 현장에 보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언제나”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불화를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자의식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다. 그녀의 ‘치료 행위’는 이 같은 내적 동기에 기반 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정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텍스트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 다만, 그녀가 평소 지닌 생활태도에서 방계적인 실마리를 발견할 수는 있다. 그녀는 엄격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성향을 가졌다. 모든 일에 책임감이 투철하고 맡은 일을 흠결 없이 해내려고 노력한다.

부엌은 깔끔했다: 주방장은 대형 구리솥을 보고서 거울로 써도 되겠다고 말했다. 불은 싸고 밝았으며 보조식탁들 중 한 곳에는 네 덩어리의 아주 큰 밥브렉 빵이 놓여 있었다. 이 빵은 잘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가보면 그 빵이 균일한 크기로 길고 두툼하게 잘려서 차 마실 때 나누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 빵을 잘랐다. (D 99)

마리아는 부엌 청소를 깔끔하게 마친 뒤에 세탁 담당 동료들이 차 마실 시간에 나누어줄 빵도 균일하게 잘라놓았다. 그런데 그 빵은 잘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 묘사는 마리아의 성격과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이후 다음날 아침 미사를 위해 자명종 시계의 시침을 미리 당겨 놓고 일정과 예산도 계획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는 평소 생활에서 규칙준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식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일제로 확장되었을 수 있

다. 빵을 균일하게 잘라놓은 행위의 밑바탕에 평화와 질서의식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녀의 행동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의식, 즉 윤리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

그런데 옹의 ‘상처 입은 치유자’ 개념에는 이와 같은 윤리적 책임의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심리치료자가 치료대상의 상처와 같은 상처를 발견할 때 무의식적인 공감미가 형성되고, 그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본다. 그리고 심리치료자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심리치료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심리치료의 과정에서는 심리치료자 자신이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한다는 것이 옹의 개념의 요지이다. 그 개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치료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자신도 검진한다는 점을 확인시키기는 하지만, 그녀가 보이는 책임의식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나우웬이 적용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에 더 부합한다. 나우웬은 치료자의 책임의식을 언급하고 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꽃에 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그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 자신의 가슴으로 고독과 절망을 경험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거나 자신의 고귀한 평정심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누가 고독과 절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줄여서 말하면,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 누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가? (Nouwen 72)

따라서 마리아가 굳이 균일하게 빵을 자른 것도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그녀는 저녁 외출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더러 새참시간에 빵을 대충 나눠 먹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칼금 흔적이 나지 않게 빵을 자를 만큼의 정성을 동료 간의 관계에도 쏟았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의식을 넘어 적극적 공감의 표현이다. 그들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감은 빠듯한 예산으로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조우 부부를 위해 “정말로 멋진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한”(D 102)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에도 나타나 있다. 그녀는 아몬드가 충분히 뿌려진 자두 케이크를 사기 위해 다운스 빵집을 지나 길 건너 헨리가의 빵집까지 갔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을 환기시키는 듯한 다소 짜증 섞인 질문을 받았다. “결혼 케이크 사시게요[?]”(D 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금을 들여 그 케이크를 샀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그녀가 상사의 호출이 있을



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불화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녀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는 것이다. 그녀가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점검한다. 그래서 또 다시 조우를 설득하고자 한다. 비록 다시 실패하기는 하지만, 이 실패는 갱생원에서 또 다른 사안의 분란을 잠재우는데 이용된다. 비록 유창한 언변과 수사를 구사하지는 못해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적이며 사회적인 상처를 그대로 노출하며 공동체의 화평을 유도해낸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II. 실존적 상처

한편,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의 얼굴이 암시하는 상처는 실존적이다. 그녀는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그 얼굴을 갖고서 “모든 것의 결핍을 상징하는” 노처녀로 살도록 던져졌다. 비록 그 상처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내기는 하지만, 그 상처는 변화시킬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조건이다. 피크가 지적했듯이, 그녀가 “진짜 평화의 사도”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녀가 지닌 책임의식이 나우웬의 경우처럼 명백히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개념이 희생양이나 예수 그리스도 등의 거룩한 심상을 연상시키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와 같은 종교적 영역과는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실존의 영역으로 제한되는 상처, 즉 실존적 조건에 매여 있는 존재로서만 드러나고 있다. 그녀에게는 그 상처가 덮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진 것이 문제이다.

물론 그녀가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의식도 당시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세탁 부들이 새참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그녀가 결혼할 거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이어진저 무니가 농담을 했을 때 마리아는 왜소한 몸을 터질 듯이 흔들면서 마녀의 웃음을 웃었다. 사소한 일들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질을 하는 사람들이 마녀의 웃음을 웃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습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모습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다, 그녀

가 나타날 때마다 암묵적으로나마 평화를 위해 협조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얼굴을 통해 재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라는 인간을 그녀의 얼굴로 해석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지닌 치명성을 예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에게 결혼할 거라며 덕담을 건네는 것이나 그녀가 “웃으면서 자기는 반지나 남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만 했던”(D 101) 상황은 애처로운 모순을 느끼게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얼굴을 타자의 윤리와 연결시킨 임마누엘 레비나스를 환기시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굴은 현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첫 마디의 말을 만들어낸다. 즉 기호가 불쑥 기표를 내미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지르는 행위이다”(Levinas 178). ‘얼굴이 첫 마디의 말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응시 주체가 타자를 자기의 시선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얼굴은 타자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응시는 ... 모든 것을 보는 대로 소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박탈한다... 이 응시는 정확히 말해서 본성이 얼굴로서 현현하는 순간”(Levinas 75)이라 할 수 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통해 그녀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녀의 본성 자체를 사실상 “박탈하는” 폭력을 가한다.

그런데 마리아도 동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동료들이 그녀의 결혼을 거론할 때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 어린 “실망스런 수줍음”(D 101)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는 그녀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얼굴에 주목하지 않는 행동에도 암시되어 있다.

그녀는 또한 블라우스를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기가 소녀였을 때 일요일 아침 미사에 가려고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토록 자주 치장을 했던 자신의 왜소한 몸을 야릇한 애정을 갖고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 몸은 아주 말쑥하고 자그마했다. (D 101)

그녀는 “그토록 자주” 치장을 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야릇한 애정”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다. 자신의 얼굴에 정작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의식적인 회피를 의심하게 한다. 그녀도 자신의 얼굴에 대해 자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결혼을 운운했던 그 순간 자신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만 했던’ 아픔을 눈을 통해 “실망스런 수줍음”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조이스는 이 애잔한 순간을 행간에 숨겨놓았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낮은 곳으로의 여행을 주저할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맞이해주는 곳을 떠날 때 자신의 ‘마녀성’을 노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주위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를 마녀로 재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마녀의 웃음을 짓지 않는 한, 그녀는 마녀로 적발되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우의 집에 가서 할로윈 파티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거리로 나왔다. 선물 사는 비용과 행로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리를 다니는 동안 다소 긴장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옷을 일이 생겨서 ‘마녀’의 모습을 노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헨리가에서 자두 케이크를 사려고 진열대 앞에서 오래 머뭇거릴 때 점원이 다소 짜증 섞인 투로 “결혼 케이크 사시게요”라고 문자 수줍게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결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처인 얼굴을 연상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D 102). 전차 안에서 “대령처럼 보이는 신사”(D 102-03)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절기와 날씨에 대해서 한담을 나눌 때도 크게 웃을 일은 없었다. 그녀는 소위 그녀의 ‘마녀성’을 노출하지 않았을 때 시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차 안의 젊은이들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노골적으로 응시했다. 사람들에게 얼굴이 그 존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다. 젊은이들은 맞은편에 앉은 마리아가 중년 남자와 한담을 나누며 미소를 지을 때 그 얼굴의 변화에 주목하며 그녀의 존재를 평가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몹시 불편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중년 남자와의 대화에 좀 더 협조적이었을 수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자두 케이크를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실존적 조건을 얼굴에 다 노출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시선의 폭력이 당사자에게 상실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암시한다.

이 처럼 주체는 타자를 응시하며 자기의 기준으로 그 존재를 재단한다. 그러나 마리아의 얼굴에 주목했던 젊은이들이 그녀가 “진짜 평화의 사도”인지 알았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타자를 볼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존재를 평가하는 것은 타자를 자신의 관점으로 환원시켜 자기와 동일화하려는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레비나스는 타자가 얼굴로 인지되는 관행에서는 타자가 곧 얼굴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그는 그 얼굴이 무한성을 띤다고 주장했다. 타자의 얼굴은 주체의 응시와 호명이 만들어낸 실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환원할 수 없는 현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얼굴은 살아있는 현존이다. 표현이다. 표현의 생명은 (특정 형태로 노출된) 존재자를 숨기는 형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얼굴은 스스로 말한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담론이 된다. 플라톤의 용어를 빌면, 자기 현시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매 순간 그는 자신이 드러내는 형식을 해체한다. (Levinas 66)

타자의 얼굴이 응시 주체의 관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이유는 얼굴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마다 그것이 현시했던 특정 형태를 해체하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이 특정 형태를 ‘모종의 주제’(a theme)라고 지칭했는데, 이것이 바로 얼굴이 담론임을 설명해준다. 담론은 제기되는 자리에서 해체되므로 관계성의 역학을 전제한다. 그 역학에 따라서 사람들은 “얼굴이 내게 말하고 그로써 나를 관계로 초대”(Levinas 198)하는 형식으로 대화한다. 이는 갱생원의 동료들이 마리아의 얼굴 때문에 그녀가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협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얼굴이 매개가 되어 그들이 평화의 관계로 “초대”된 것이다.

그리고 조우가 마리아를 보고 “진짜 엄마”라고 치켜세운 것도 그녀의 얼굴이 만들어준 관계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녀의 얼굴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녀를 마녀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갱생원에서 생활하다 그의 집으로 오랜만에 방문하는 그녀에게서 다소의 낯설음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엘피와 화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녀는 이미 낯선 존재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가 마리아를 “진짜 엄마”라고 지칭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 낯설음이 이미 감지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진짜 엄마”라는 말 자체가 마리아가 그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제 곧 “진짜 엄마”에 대한 불편한 환대가 이어진다. 그 환대는 잃어버린 자두 케이크 때문에 미안해하는 그녀를 위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녀가 진짜 엄마라면 그녀가 너무 속상해 하고 있고, 그 케이크를 몰래 먹은 것으로 오해를 받은 아이들도 기분이 상했는데다 그 케이크의 가격이나 특별선물로서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도 함께 속상해 할 만한 일이다. 그의 다혈질 성격이 왜 이 장면에서 분출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후 그가 마리아

를 사실상 ‘환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조우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난롯가에 앉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했고 자기 상사에게 했던 재미 있는 말을 그녀에게 반복해서 말하기까지 했다. 마리아는 조우가 왜 자기가 한 말을 두고 저렇게 크게 웃는 지 이해하지 못했다. . . . 그때 옆집 소녀 둘이서 호두를 나누어주었다. 아무도 호두까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조우는 그 때문에 거의 사나울 지경으로 화를 내면서 마리아가 호두까기도 없이 어떻게 호두를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호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우는 그녀에게 맥주 한 병 마시겠냐고 물었고 도넬리 부인은 마리아가 그것보다 적포도주를 좋아하면 집안에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우는 계속 권했다. (D 104)

“[조우가] 그녀에게 매우 친절했다”는 인상은 이후 다소 과도한 친절로 이어지면서 그녀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그가 진짜 엄마를 대하고 있다기보다 환대해야 할 타자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키운 조카의 집에 왔지만, 조카는 그녀를 타자로 여기고 있다. 그가 유별나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녀가 타자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함께 살자고 그가 권유했던 것도 그녀가 집밖의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줄 따름이다.

이어 그들은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놀이를 시작하면서 마리아더러 참여하도록 “졸랐다”(D 105). 환대의 또 다른 양태이다. 놀이는 술래의 눈을 가리고 물건을 선택하게 해서 그 물건과 술래의 미래를 연결하여 덕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놀이는 한 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존재의 낯설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

그때 그들은 마리아도 눈을 가려서 그녀가 탁자에서 무엇을 집을지 보자고 계속 졸랐다. 그들이 마리아의 눈을 가리는 동안 그녀는 웃고 또 웃었다. 그녀의 코끝이 거의 턱 끝에 닿을 때까지. (D 105)

할로윈 파티가 귀신이나 마녀 등의 방문을 차단하기 위한 행사인 점을 감안할 때 그녀의 웃는 얼굴은 결국 그 곳에 마녀가 방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왔다. 얼

굴로 인한 그녀의 상처는 이곳에서도 그대로 인지되고 있다. 그녀의 현존은 여전히 그 얼굴에 의해서 의미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환대를 낯설게 느끼고는 있다. “마리아는 조우가 그 날 밤처럼 친절했던 적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재미난 이야기와 옛날 생각들이 넘쳐났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자기를 너무 잘 대해주었다고 말했다”(D 105).

### III. 윤리와 선택 행위

그러므로 마리아의 얼굴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녀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타자의 얼굴은 그의 존재를 대리한다는 의미에서 응시 주체의 폭력이 가해지는 장소이며 타자가 호명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체가 인식한 타자의 현존은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기화한 것일 뿐 타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어떤 현존에 대한 해석이 그 현존의 (존재)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현존은 “직관의 영역이 아니다”(Levinas 66). 전차 안의 젊은이들이 마리아의 실체를 알 수 없듯이 그녀의 얼굴은 사실상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 더 직접적인 현존”(Levinas 66)이다. “얼굴은 모든 의미가 나타나는 원천”(Levinas 297)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타자의 현존을 주체가 환원하거나 자기화할 수 없는 것이다. 얼굴의 의미는 늘 새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자(의 얼굴)는 시선의 의미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 윤리가 개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얼굴)는 주체의 시선으로 환원되고 만다. 이것이 사람들이 타자를 바라보는 관행이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온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개역개정, 야고보서 2.9). 이 교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의 원어가 ‘얼굴을 취하다’(προσωπολημπτεῖτε [prosopo-lempteite])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단어는 ‘얼굴’(πρόσωπον [prosopon])과 ‘(적극적으로) 취하다, 만다, 얻다’(λαμβάνω[lambano])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서 어형변화가 일어난 형태이다. 이 단어는 타자의 존재, 그리고 응시하는 시선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타자를 그의 ‘얼굴’로 치환하는 행위를 대변한다.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의 얼굴을 보되 ‘적극적으로’ 그 얼굴을 취하는 것으로 보

아 시선의 주체성도 감지된다. 바라보는 자가 상대방의 외형적 특성을 그의 존재 자체로 해석하는 자의적인 태도가 이 단어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다’(show partiality)의 뜻으로 사용된다.

사실상 얼굴은 타자의 현존을 응시 주체의 시선으로 환원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얼굴은 ‘무한성’을 지니는 실존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그 무한성을 신의 영역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타자의 존재를 주체의 관점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존재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해당하며 타자에 대한 범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는 얼굴의 ‘윤리’를 거론한다. “얼굴은 원초적인 담론을 전개하는데 그 첫 단어는 책임이다”(Levinas 201). 그 책임은 타자에 대한 윤리를 암시한다. 그 윤리는 동일성 환원의 폭력을 시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타자는 나를 대면하고 나에게 묻고 나에게 책임을 지운다”(Levinas 207). 이 책임은 존재자라면 누구든 의식할 수밖에 없다. 자신도 언제든 응시당하는 타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공생의 원리이며 제일의 철학이다.

레비나스가 얼굴의 윤리를 주장한 것이 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윤리적 영역”과 상관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의 영역”(spheres of existence)을 심미적(aesthetic), 윤리적(ethical), 종교적(religious) 영역으로 나누고서, 이 세 영역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므로 개선을 위한 선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각 영역이 지시하는 내용을 다소 과도하게 단순화시킬 때 각각 자신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 신을 위한 삶을 나타낸다(Anderson 44-45). 마리아는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거나, 예술가처럼 자기 성취의 삶을 추구하거나, 니체의 초인처럼 영웅적 이상을 좇는 등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유형”(Anderson 46)의 인물이 아니므로 심미적 영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편, 윤리적 영역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에게 옳은 일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일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인물형과 흡사하다. 이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사는 삶을 꼽을 수 있다(Anderson 47). 마리아의 경우 그녀의 얼굴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과 자두 케이크를 잃어버린 데서 암시되듯이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운명을 예감할 수 있지만, 그녀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을 볼 때 그녀는 결혼

을 해서도 자기 개인보다는 가정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리아는 윤리적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윤리적 영역의 삶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것이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삶의 영역들 대신에 선택하고자 할 때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와의 관계에는 책임이 개재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진짜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이다. 물론 그녀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선택”(Anderson 51)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상처를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그녀가 선택을 강요받는 조건이 아닌 수준에서의 자유를 염두에 둘 수는 있다. 적어도 그녀는 수고를 무릅쓰고서도 빵을 균등하게 잘랐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왁스플라워를 나눠주기도 했다. 그녀는 갱생원 벽에 붙어 있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벽보를 싫어했는데, 그녀가 종교적 논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꺼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우 부부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D 103)을 준비하려고 한 애정, 혹은 적극적 공감의 열정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공감은 선택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 행위는 실존주의적 인간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통찰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 양식은 인간이 “염려하고 욕구하며 조작하고, 무엇보다, 선택하고 행동한다”(“Existentialism” 631)는 현상학적 인식론에 따라 표명된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염려하고 욕구하며 조작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등 인식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식은 상대화, 주관화, 심리화된다. 그렇게 해서 존재자는 현상에서 존재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그 모색의 과정이 결국 인식의 처리를 선택하게 한다. 선택이 그 이전의 염려와 욕구와 조작을 정지시키고 행동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택행위도 실존주의에 따르면 미래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마리아는 눈을 가리고 물건을 고르는 놀이에서 진흙을 만졌다. 진흙이 죽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마녀의 웃음을 웃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조건을 닮았다. 비록 그 얼굴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얼굴은 그녀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혼에 대해 “실망스런 수줍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 조건 아래서 그녀의 선택행위는 어떤 의미를 성취할 것인가? 모든 것이 박탈당한 죽음의 세계에서 결국 그녀 앞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의 존재 양식은 선택행위에 의해 영역 간의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 심미적 영역에서 윤리적 영역으로, 윤리적 영역에서 종교적 영역으로 개선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마리아가 다시 눈을 가린 뒤 더듬어서 기도책을 고른 것처럼 말이다. 물론, 기도책을 골랐다고 조우 부인의 덕담대로 그녀가 ‘올해가 가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될’(D 105)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추정을 하든 마리아는 결혼을 꿈꾼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노래를 부르며 사실상 그 꿈을 공표했다. 게다가 그 꿈이 녹아 있는 노랫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불렀다.

나는 꿈꾸었네 대리석 홀에서 사는 것을  
 종자들과 노예들을 곁에 두고서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자 자부심이기를.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부를 가졌고  
 고상한 조상을 자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대가 나를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랑해주는 것  
 그 꿈을 꾸었네. (D 106)

노리스는 이 노래의 동화적 요소(Norris 153) 때문에 마리아가 사회적 조롱과 모욕을 내면화하도록 압박하는 사회적 기제에 대해 저항하는 환상을 꾸며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진흙」 자체를 마리아의 “유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말한다(Norris 142). 하지만, 그녀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극구 부정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여전히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 “실망스런 수줍음”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환상보다는 그녀의 실존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윤리적 영역에 살고 있지만, 심미적 영역을 완전히 극복하여 개선된 상태

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심미적 영역의 불만이 윤리적 영역에서는 상처로 인지되고 있다. 이 모순은 그녀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악이 혼재하는 현상세계 속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녀는 “세계 내”(“Existentialism” 631) 존재로서 그 모순을 겪고 있다. 이 존재론적인 모순 자체가 실존적 상처이지만, 그 상처는 다른 모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때 마리아가 개선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마비된 자로서 살아 가야 했을 것이다. 조우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서 그녀가 현시한 운명의 애잔함을 잊어버리고자 선택했을 때 그러한 마비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서 눈에 눈물이 가득 꺾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결국 아내에게 와인 병따개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술만 마시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다”(D 100)는 마리아의 기억에 암시된 대로, 결국 그는 마비된 군상의 일원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얼굴로 대변되는 실존적 상처를 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갇히게 되더라도 스스로 “진짜 평화의 사도”가 되기로 선택했다. 오늘 밤 환대를 받았던 조우의 집을 떠나 갯생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녀는 “평화의 사도”로 살게 된다. 그 선택의 이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처의 작용이 다시금 그녀를 “아주 사소한 실수들”의 연속 가운데서 상황적 모순에 얽힌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도 그녀의 상처가 만든 윤리적 책임의식은 그녀로 하여금 ‘치유자’가 되는 선택행위를 하게 했다. 그녀는 존재자가 선택을 통해서 존재의 개선을 이루어가야 마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

#### IV. 나가는 말: 삶의 이유

조이스는 마리아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묘사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가 웃을 때 마녀를 연상시킴으로써 그녀의 불운한 운명을 예감하게 한다. 특히 결혼이 거론될 때 그녀는 “실망스런 수줍음”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마녀의 얼굴은 응시주체의 시선이 만들어낸 모습이지만 그 시선에 의해서 그녀의 존재는 재단되고 만다. 그녀는 이 같은 폭력이 늘 가해지는 실존적 상처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녀를 평화의 사도가 되게 했다.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것”으로 조우 부

부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들여 자두 케이크를 마련했다. 이러한 적극적 공감에 따른 선택행위도 이유 없이 죽음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 실존의 조건이지만, 그녀는 다시금 동료 타자에게로 돌아간다. 비록 실존적 조건이 인간을 매장시키고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녀에게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선택하는 윤리적 태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상처 입은 치유자’는 타자를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려는 응시 주체의 폭력 아래서 인간이 죽음 같은 삶을 이기기 위해 선택해야 할 삶의 모형이 될 수 있다. 존재자는 던져진 곳에서 눈이 가려진 채 더듬으며 의미를 선택하지만 그 의미도 결국 사라지고 마는 과정을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선을 위한 선택을 시도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삶을 마비시키는 실존적 조건을 두드러져 보이게 할지라도 삶의 의미는 “선택하고 행동할” 때 스스로 드러난다. 얼굴이 무한성과 연결되듯이 삶도 순간의 시선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율리시스』(*Ulysses*)의 스티븐과 블룸이 상처를 안고 사는 인물이기는 해도 그들은 마리아처럼 실존적 조건 아래 마비되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서는 삶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이들은 선의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실존적 조건을 안고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대변하고 있다.

(백석대)

## 인용문헌

- Anderson, Susan Leigh. *On Kierkegaard*. Wadsworth, 2000.
- “Existentialism,”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 4, Encyclopedia Britannica, Inc., 2007.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Yale UP, 1979.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The Viking Press, 1969.
- Jung, Carl.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ollected Works 16. Princeton UP, 2014.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79.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 of Pennsylvania P, 2003.
- Nouwen, Henri J. M.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Darton, Longman & Todd, 1979.
- O’Connor, Frank. “Work in Progres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The Viking Press, 1969, pp. 304-15.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UP, 1977.

**Abstract**

Maria as a “Wounded Healer”:  
Joyce’s Existentialist Understanding of Life

Ihnkey Lee

Maria in “Clay” of *Dubliners* by James Joyce is characteristic of “the wounded healer.” She has a witch-like face, which refers to her Existential wound. Because of her face, gazing subjects objectify her as a witch, which means, as for Maria, she is not to be married. Her face is equivalent to an inexorable Existential condition. It follows that she has become a stranger who needs to be welcome with her company cooperating to make her “a veritable peacemaker” and “my proper mother.” Being the object of their compassion, however, she chooses to make peace among her communities. She has been willingly sent for women’s quarrels and taken the trouble to bring “something special” to Joe and his wife. Although those acts look meager, she has tried to mend the relationship with not always successful results. She exerts Existential effort for the improvement even under the paralyzing force of the objectifying gazes. She testifies to an ethical attitude toward life. In that sense, she is a wounded healer.

■ **Key words** : wounded healer, witch, peacemaker, face, Existential wound, Existential choice, ethics

(상처 입은 치유자, 마녀, 평화의 사도, 얼굴, 실존적 상처, 실존적 선택, 윤리)

논문접수: 2018년 5월 21일

논문심사: 2018년 6월 5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5일